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

A Study on the Image of Elderly People in the Ageing Society

안옥희 · 임희경* · 김현진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An, Ok Hee · Lim, Hi Kyung* · Kim, Hyun Jin

Dept. of Human Ecology, Yeungnam University ·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 Dept. of Human Ecology,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possible solutions to the aged-related problem that is emerging as one of serious social issues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images young people have toward the aged. The questionnaire-based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643 middle school students representing teens and 523 undergraduates representing young people in the twenties, who were 592 from Daegu and 574 from Gwangju. It was carried out from December 2000 to March 2001. The data were analyzed in frequency(N), percentage(%), mean(M) and standard deviation(SD) through the SPSSWIN 10.0 program, χ^2 -test and reliability test.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52.5%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the experience in living together with their grandparents, while the number of respondents currently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ents just accounted for 17.6%. In the question about the sense of value for family life, it was shown that the traditional idea that an eldest son or other son has the duty of supporting parents was positively changed to one that any of sons or daughters may support parents. The entire image toward the aged appeared to be positive with the mean value of 3.62. Things associated with the aged were the respect-for-aged house and a stick in that order. The images young people perceive towards the aged were largely divided into the 13 items image including the community centers for the aged.

Key words : image of elderly people

I. 서론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평균수명의 연

장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통계청(2002)에 따르면 우리 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00년 전체 인구의 7.4%에 달함으로써 현재 우리 나라는 고령화 사회이며, 2019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사회 문제로서 노인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지 노인인구

Corresponding author : Kim, Hyun Jin
Tel : (053) 810-2864 Fax : (053) 816-0420
E-mail : jinikim74@yumail.ac.kr

가 늘었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변화이다. 전통사회에서의 노인관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쇠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노인에게 여러 가지 특권과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존경과 권리를 누리도록 하였으나(박재간, 1995),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는 노인의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었으나, 현재의 핵가족구조에서는 노인의 부양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즉 노인 세대들은 가족 안에서 권위를 상실하게 되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부양의 문제는 가족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종래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적 차원에서 법체계 개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1992), 사회적 서비스 체제 구축(최정아 외, 1992; 최성재, 1991; 김동배, 1989), 노인 생활환경의 개선(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이연숙, 1993; 임철우 외, 1993)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세대간의 차이를 가지지 않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심과 이해를 깊이 하여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는 중요한 일이다(綿引, 1994). 따라서 부양책임이 있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부양대상자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도 눈에 띄고 있다(홍달아기 외, 2002; 이은경, 1999; 박영숙, 1998; 박의순, 1990; 광필선, 1989). 그러나 노인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를 결정짓는데 기본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는 노인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인식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은 대구광역시

(592명)와 광주광역시(574명)로 한정하였으며, 연령은 중학생(643명)과 대학생(523명)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을 지역과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이유는 이들 속성에 따라 노인이미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영호남의 생활문화의 차이에 따라 젊은이들이 가지는 노인 이미지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생활문화나 생활 환경의 차이에 따라 가지게 되는 이미지 형성이 다를 것이며, 특히 연령에 따라 노인이미지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이선자, 1989)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0년 12월~2001년 3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1200부 중 1166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는 綿引(1994)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외)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에 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구분	N(%)
성별	남	540(46.4)
	여	624(53.6)
가족수	3명 이하	164(14.9)
	4명	501(45.3)
	5명	286(25.9)
	6명 이상	155(14.0)
	M(SD)	4.41(1.14)
부나이	30대	52(5.0)
	40대	588(56.5)
	50대 이상	402(43.0)
	M(SD)	48.03(6.44)
모나이	30대	210(19.8)
	40대	637(59.9)
	50대 이상	215(20.3)
	M(SD)	44.87(6.39)
주택형태	단독주택	596(53.7)
	아파트	464(41.8)
	연립주택	41(3.7)
	주상복합	9(0.8)
어머니 경제활동	활동함	527(47.4)
	활동안함	584(52.6)

한 사항 6문항, 가족생활과 가치관에 관한 사항 5문항,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5점 척도), 노인과 연상되는 이미지에 관한 사항 36문항 (Cronbach α =.7610)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N),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χ^2 -test, 신뢰도 검증 등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분석

1. (외)조부모와의 동거에 관한 사항

(외)조부모와의 동거에 관한 사항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조부모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조모만 계시는 경우가 47.0%로 거의 절반을 차지해 높게 나타났으며, 외조부모의 경우도 외조모만 계시는 경우가 4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남성은 38.2%, 여성은 61.8%(통계청, 2002)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족생활에서 과거와 현재에 있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52.8%가 과거에 (외)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동거 유무에 있어서는 '함께 산다'가 17.6%로 나타나 과거 조부모와 동거하였던 가족도 현재는 동거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조부모 동거비율은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13.6%(통계청, 2002)이므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동거 대상으로는 조모가 59.4%로 가장 높았으며, 동거기간은 10년 이상이 57.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외)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은 연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표 2> 조부모와의 동거에 관한 사항

변인	구분	N(%)
생존하시는 조부모	모두 계심	254(27.6)
	조모만 계심	432(47.0)
	조부만 계심	46(5.0)
	모두 안계심	188(20.4)
생존하시는 외조부모	모두 계심	305(33.4)
	외조모만 계심	434(47.5)
	외조부만 계심	45(4.9)
	모두 안계심	130(14.2)
과거 동거경험	있다	589(52.8)
	없다	527(47.2)
현재 동거유무	함께 산다	196(17.6)
	따로 산다	915(82.4)
동거대상	조부모	40(20.3)
	조모	117(59.4)
	조부	15(7.6)
	외조부모	12(6.1)
	외조모	11(5.6)
	외조부	2(1.0)
동거년수	3년 미만	33(17.3)
	3~5년 미만	26(13.6)
	5~10년 미만	22(11.5)
	10년 이상	110(57.6)

에 대하여 지역, 성별, 연령, 주택형태, 어머니 경제활동, 과거의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3>과 같이 성별,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서만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하의 분석에서는 이들 세 변인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부모와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세대차이(57.8%)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생각(58.3%)에 있어서는 '가끔씩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부양에 관한 전통관습에 대해서는 64.0%가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부양에 대한 장남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자식이면 누구나 모셔야 한다(42.0%)'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부양에 대한 생각에

<표 3>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인	구분	N(%)	성별		연령		조부모동거경험	
			남	여	대학생	중학생	유	무
부모와 사교방식에 있어서의 세대차이	자주있다	284(24.5)	122(22.8)	162(26.0)	132(25.5)	152(23.7)	152(25.9)	122(23.2)
	가끔씩있다	670(57.8)	319(59.5)	350(56.3)	327(63.1)	343(53.4)	328(55.9)	314(59.7)
	거의없다	173(14.9)	77(14.4)	96(15.4)	56(10.8)	117(18.2)	89(15.2)	76(14.4)
	전혀없다	33(2.8)	18(3.4)	14(2.3)	3(0.6)	30(4.7)	18(3.1)	14(2.7)
	χ^2		3.288		32.506***		1.776	
부모의 노후에 대한 생각	자주있다	248(21.4)	122(22.8)	124(19.9)	136(26.3)	112(17.4)	136(23.2)	95(18.1)
	가끔씩있다	676(58.3)	300(56.0)	376(60.5)	320(61.8)	356(55.5)	333(56.7)	321(61.0)
	거의없다	171(14.7)	83(15.5)	88(14.1)	57(11.0)	114(17.8)	87(14.8)	77(14.6)
	전혀없다	65(5.6)	31(5.8)	34(5.5)	5(1.0)	60(9.3)	31(5.3)	33(6.3)
	χ^2		2.472		57.176***		4.841	
부모부양에 관한 전통관습에 대한 생각	좋다	742(64.0)	351(65.5)	389(62.6)	361(69.8)	381(59.3)	377(64.3)	338(64.3)
	어쩔수없다	186(16.0)	101(18.8)	85(13.7)	71(13.7)	115(17.9)	90(15.4)	84(16.0)
	좋지않다	68(5.9)	28(5.2)	40(6.4)	29(5.6)	39(6.1)	33(5.6)	34(6.5)
	모르겠다	163(14.1)	56(10.4)	107(17.2)	56(10.8)	107(16.7)	86(14.7)	70(13.3)
	χ^2		15.240**		15.069**		.755	
부모부양에 대한 장남의무	당연하다	163(14.1)	128(23.9)	34(5.5)	58(11.2)	105(16.4)	86(14.7)	66(12.6)
	형편되는아들	429(37.0)	236(44.0)	192(30.9)	217(41.9)	212(33.1)	233(39.7)	177(33.7)
	자식누구나	487(42.0)	140(26.1)	347(55.9)	213(41.1)	274(42.7)	228(38.8)	244(46.5)
	자립해야함	45(3.9)	13(2.4)	32(5.2)	24(4.6)	21(3.3)	19(3.2)	25(4.8)
	모르겠다	35(3.0)	19(3.5)	16(2.6)	6(1.2)	29(4.5)	21(3.6)	13(2.5)
	χ^2		149.896***		23.780***		10.098*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	그럴수있다	953(82.4)	412(77.2)	539(86.8)	455(88.0)	498(77.8)	490(83.3)	426(81.3)
	현실불가능	56(4.8)	33(6.2)	23(3.7)	22(4.3)	34(5.3)	29(4.9)	26(5.0)
	좋지않다	34(2.9)	27(5.1)	7(1.1)	12(2.3)	22(3.4)	12(2.0)	17(3.2)
	상관없다	32(2.8)	19(3.6)	13(2.1)	11(2.1)	21(3.3)	14(2.4)	18(3.4)
	모르겠다	82(7.1)	43(8.1)	39(6.3)	17(3.3)	65(10.2)	43(7.3)	37(7.1)
	χ^2		25.422***		25.892***		2.773	

*p<.05 **p<.01 ***p<.001

있어서도 82.4%가 '공감하고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해 과거의 장남의 의무로만 여겨지는 부모부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젊은이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와 세대차이를 느끼나 부모를 자식이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연구 결과에서는 노부모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비율이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녀라면 누구든지 모셔도 된다'가 27.5%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아들, 딸 구별없이 자식이면 누구나 모셔야 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부양자는 전통적인 장남 중심이 아니라 자식의 성별이나 출생순위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 나라 대다수 노인들은 장남부부와 동거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통적인 직계가족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장남 이외의 자녀와의 동거형태 및 노인단독세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에는 반드시 장남이

<표 4>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구분	N(%)	M (SD)	성별		연령		조부모동거경험	
			남	여	대학생	중학생	유	무
매우 긍정적이다	98(8.9)	3.62 (.84)	49(9.7)	49(8.3)	27(5.4)	71(11.9)	63(11.4)	28(5.6)
대체로 긍정적이다	632(57.5)		316(62.7)	315(53.1)	323(64.1)	309(51.9)	307(55.6)	301(59.7)
그저 그렇다	232(21.1)		74(14.7)	157(26.5)	73(14.5)	159(26.7)	112(20.3)	112(22.2)
대체로 부정적이다	126(11.5)		60(11.9)	66(11.1)	76(15.1)	50(8.4)	66(12.0)	56(11.1)
매우 부정적이다	11(1.0)		5(1.0)	6(1.0)	5(1.0)	6(1.0)	4(0.7)	7(1.4)
χ^2			23.132***		50.210***		13.004*	

*p<.05 ***p<.001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식은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서병숙(1996)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관에 대해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부양에 대한 장남의 의무(p<.001),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부양에 대한 생각(p<.001), 부모부양에 관한 전통관습에 대한 생각(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부양에 대한 장남의 의무에 대해서 남자는 '형편에 따라서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이 모실 수 있다(44.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딸, 아들 구별 없이 자식이면 누구나 모실 수 있다(5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부양에 대한 생각에서는 '가능하다'가 남자(77.2%)보다 여자(86.8%)가 더 높다고 생각하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좀더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남자 응답자의 경우 '장남이 모셔야 된다'와 '아들이 모셔야 된다'는 비율이 여자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님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세대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중학생(77.1%)보다 대학생(88.6%)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중학생(72.9%)보다 대학생(88.1%)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부모부양의무는 대학생은 형편이 되는 아들(41.9%), 자식 누구나(41.1%)가 비슷한 비율이나 중학생은 자식 누구나

(42.7%)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p<.001).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부양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가 중학생(77.8%)보다 대학생(88.0%)이 더 높게 나타났(p<.001). 부모부양에 관한 전통관습은 대학생(69.8%)이 중학생(59.3%)보다 더 많은 비율이 '좋다'고 생각하였다(p<.01). 즉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관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에 따라서는 부모부양에 대한 장남의 의무(p<.05)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형편에 따라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이 모실 수 있다(39.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는 '딸, 아들 구별 없이 자식이면 누구나 모실 수 있다(46.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 2>에 나타내었듯이 현재 동거 대상에서 친가(87.3%)쪽이 외가(12.7%)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연계시켜 생각해 볼 때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친가쪽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부모부양의 주체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대체로 긍정적이다'가 57.5%, '매우 긍정적이다'가 8.9%로 과반수 이상이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

미지가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M=3.62$). 반면, 한정란(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竹田 외(1991)의 연구에서도 일본, 대만, 한국 대학생들의 노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竹田 외(1991)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의 노인 이미지는 일본 대학생보다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 사회적 변화로 노인부양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긴 하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이나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성별($p<.001$), 연령($p<.001$), 조부모와의 동거경험($p<.05$)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보다 남자가, 대학생보다 중학생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노인의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임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란(1999)의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하여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좀더 전통적인 의식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서병숙 외(1999)와 한정란(1999)의 연구에서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이 동거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繆引(1994)의 연구에서도 고령자와의 접촉 경험이 많은 쪽이 고령자에 대해 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竹田 외(1991)의 연구 결과에서도 노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한국의 경우 동거경험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노인과 접촉 기회를 가지게 하고 (외)조부모와 동거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36문항에 대하여

그 문항이 노인을 연상시키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13항목에 대해서만 50% 이상의 조사대상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90.1%가 '경로당'이 노인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였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13개 항목을 보면 '인생경험이 풍부하다', '온화하다', '인자하다', '부지런하다'와 같이 노인의 인성을 나타내는 항목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경로당', '지팡이', '양로원', '바둑(장기)', '농촌', '노인주택', '연금'과 같이 노인시설이나 복지와 관련된 항목과 '죽음', '치매'와 같이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항목도 나타나고 있다.

13개 항목에 대하여 성별,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인생경험이 풍부하다($p<.001$)', '부지런하다', '노인주택', '연금'($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생경험이 풍부하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연상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84.6%)이 여성(74.0%)보다 좀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부지런하다'는 여성(62.5)이 남성(54.3%)보다 더 많은 비율로 연상된다고 하였다. 반면, '노인주택'과 '연금'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연상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노인주택'에 대해서 남자의 경우 연상된다(56.4%)는 비율이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 연상되지 않는다(51.7%)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금'에 대해서도 남성은 연상된다(56.0%)는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은 연상되지 않는다(52.0%)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사회활동 경험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인생경험이 풍부하다($p<.001$)', '지팡이($p<.05$)', '죽음($p<.001$)', '치매($p<.01$)', '농촌($p<.01$)', '연금($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 '농촌', '연금'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다른 연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죽음'에 대해서는 대학생은 연상된다(64.9%)의 비율이 높았으나 중학생은 연상되지 않는다(50.6%)의 비율이 높았다. '농촌'에 대해서 중학생은 연상된다(57.6%)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생은 '연상되지 않는다(52.5%)'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표 5> 노인과 연상되는 이미지

변인	구분	N(%)	성별		연령		조부모동거경험	
			남	여	대학생	중학생	유	무
경로당	그렇다	1001(90.1)	458(90.0)	542(90.3)	461(91.3)	540(89.1)	506(89.6)	455(90.8)
	그렇지않다	110(9.9)	51(10.0)	58(9.7)	44(8.7)	66(10.9)	59(10.4)	46(9.2)
	χ^2		.039		1.465		.475	
인생경험이 풍부하다	그렇다	915(78.9)	452(84.6)	462(74.0)	445(85.9)	470(73.2)	468(79.6)	408(78.0)
	그렇지않다	245(21.1)	82(15.4)	162(26.0)	73(14.1)	172(26.8)	120(20.4)	115(22.0)
	χ^2		19.462***		27.749***		.415	
지팡이	그렇다	874(78.7)	406(79.8)	467(77.8)	380(75.2)	494(81.5)	439(77.7)	397(79.2)
	그렇지않다	237(21.3)	103(20.2)	133(22.2)	125(24.8)	112(18.5)	126(22.3)	104(20.8)
	χ^2		.613		6.454*		.373	
양로원	그렇다	757(65.3)	353(66.0)	402(64.6)	348(66.9)	409(64.0)	374(63.9)	254(67.4)
	그렇지않다	402(34.7)	182(34.0)	220(35.4)	172(33.1)	230(36.0)	211(36.1)	171(32.6)
	χ^2		.232		1.077		1.499	
온화하다	그렇다	698(60.1)	318(59.4)	378(60.6)	318(61.3)	380(59.2)	368(62.6)	301(57.4)
	그렇지않다	463(39.9)	217(40.6)	246(39.4)	201(38.7)	262(40.8)	220(37.4)	223(42.6)
	χ^2		.115		.519		3.057	
인자하다	그렇다	690(59.5)	318(59.6)	371(59.5)	314(60.6)	376(58.6)	353(60.0)	312(59.7)
	그렇지않다	470(40.5)	216(40.4)	253(40.5)	204(39.4)	266(41.4)	235(40.0)	211(40.3)
	χ^2		.001		.500		.016	
부지런하다	그렇다	681(58.7)	290(54.3)	390(62.5)	308(59.5)	373(58.1)	361(61.4)	290(55.4)
	그렇지않다	479(41.3)	244(45.7)	234(37.5)	210(40.5)	269(41.9)	227(38.6)	233(44.6)
	χ^2		7.968**		.219		4.033*	
죽음	그렇다	652(56.4)	285(53.5)	366(58.8)	337(64.9)	315(49.4)	335(57.5)	288(54.9)
	그렇지않다	505(43.6)	248(46.5)	256(41.2)	182(35.1)	323(50.6)	248(42.5)	237(45.1)
	χ^2		3.367		28.169***		.761	
바둑(장기)	그렇다	613(55.2)	280(55.0)	332(55.3)	266(52.7)	347(57.3)	289(51.2)	300(59.9)
	그렇지않다	498(44.8)	229(45.0)	268(44.7)	239(47.3)	259(42.7)	276(48.8)	201(40.1)
	χ^2		.012		2.344		8.185**	
치매	그렇다	638(55.1)	293(54.9)	345(55.5)	314(60.4)	324(50.4)	320(54.8)	295(56.2)
	그렇지않다	520(44.9)	241(45.1)	277(44.5)	206(39.6)	314(49.6)	264(45.2)	230(43.8)
	χ^2		.041		10.674**		.218	
농촌	그렇다	589(53.0)	281(55.2)	307(51.2)	240(47.5)	349(57.6)	299(52.9)	272(54.3)
	그렇지않다	522(47.0)	228(44.8)	293(48.8)	265(52.5)	257(42.4)	266(47.1)	229(45.7)
	χ^2		1.804		11.205**		.201	
노인주택	그렇다	579(52.1)	287(56.4)	290(48.3)	273(54.1)	306(50.5)	291(51.5)	270(53.9)
	그렇지않다	532(47.9)	222(43.6)	310(51.7)	232(45.9)	300(49.5)	274(48.5)	231(46.1)
	χ^2		7.153**		1.402		.607	
연금	그렇다	573(51.6)	285(56.0)	288(48.0)	293(58.0)	280(46.2)	279(49.4)	267(53.3)
	그렇지않다	538(48.4)	224(44.0)	312(52.0)	212(42.0)	326(53.8)	286(50.6)	234(46.7)
	χ^2		7.044**		15.396***		1.627	
50% 미만 응답분할	여유로움, 화초가꾸기, 한복, 공원, 종교시설, 사회복지, 부모님의 노후, 존경스럽다, 용돈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친절하다, 헌신적이다, 사회의 공로자이다, 박식하다, 고독하다, 독거, 병치레, 우울하다, 고집스럽다, 허무하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저분하다, 잔소리하다.							

*p<.05 **p<.01 ***p<.001

보여주고 있다. '연금'에 대해서는 대학생은 연상된다(58.0%)는 비율이 높았으나 중학생은 연상되지 않는다(53.8%)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노인복지에 대한 현실이 중학생에 비해 대학생에게 더 가깝게 인지되고 있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부지런하다(p<.05)', '바둑·장기(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상 경향은 같았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젊은이들이 가지는 노인의 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부양대상자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예측하여 노인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남녀 중학생, 대학생 1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52.8%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었으며, 현재는 17.6%로 그 동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세대차이가 있다 82.3%로 나타났으나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관습에 대해서는 64.0%가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부양 의무는 장남과 아들 우선이라는 의식에서 형제구별 없이 또는 딸의 부양을 수용하는 의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젊은이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와 세대차이를 느끼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5점 만점의 평균 3.62점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성별(p<.001), 연령(p<.001), 조부모와의 동거경험(p<.05)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보다 남자가, 대학생보다 중학생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경로당'을 비롯한 13개 항목에서 50% 이상

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13개 항목에 대하여 성별,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인생경험이 풍부하다(p<.001)', '부지런하다', '노인주택', '연금'(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인생경험이 풍부하다(p<.001)', '지팡이(p<.05)', '죽음(p<.001)', '치매(p<.01)', '농촌(p<.01)', '연금(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부지런하다(p<.05)', '바둑·장기(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미래에 노인을 부양하게 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사회에서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나 전통적인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젊은이가 노인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인과의 접촉이나 경험의 기회를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의 다양한 교육 속에서 젊은이들이 노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령에 맞는 세대교류 기회와 세대연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없애고 미래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노인 이미지

참고문헌

- 곽필선(1989),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배(1989),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

- 책, 정무 제2장관실.
- 박영숙(1998), 핵가족화에 따른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변화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재간(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남출판사.
- 박충선(2000), 21세기 인구 노령화의 과제-건강과 복지-, 영남대 부설 노인학연구소.
- 서병숙(1996), 노인연구, 교문사.
- 서병숙·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9(2), 97-111.
-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숙(1993), 노인보호주택, 경춘사.
-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임철우·윤종숙(1993), 노인을 위한 공간, 경춘사.
- 장인협·최성재(1996),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 조명희(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교학생의 태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1991), 지역사회 주민의 노인복지참여방안, 한국노년학회지 11(11), 85-96.
-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2(1), 65-78.
- 통계청(2002), 2000 통계연감, 통계청.
- 한국노년학회(2002), 고령화 사회의 주택과 서비스 개발방향.
-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경춘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노령 계층의 소득보장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1993),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3), 115-127.
- 홍달아기·하근영(2002),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1(2), 107-121.
- 綿引伴子(1994), 女子高校生の高齢者に對する意識や關心の現狀とそれに影響をえる要因, 日本家政學會誌 Vol. 45 No. 4 331-341.
- 竹田 久美自 外(1991), 日台韓大學生の老人に對する態度と老後責任意識に關する研究, 日本家政學會誌 Vol. 42 No. 5 405-413.

(2002. 08. 29 접수)